

## PA-111

## 재배시기에 따른 드문모심기 생산성 변화 분석

황운하<sup>1\*</sup>, 양서영<sup>1</sup>, 정재혁<sup>1</sup>, 이현석<sup>1</sup>, 이충근<sup>1</sup>Woon-Ha Hwang<sup>1\*</sup>, Seo-Young Yang<sup>1</sup>, Jae-Hyeock Jeong<sup>1</sup>, Hyeon-Seok Lee<sup>1</sup>, Chung-Kuen Lee<sup>1</sup><sup>1</sup>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<sup>1</sup>Crop production & Physiology,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, Jeonju, Korea

## [서론]

최근 벼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드문모심기 재배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드문모심기는 파종량을 늘리고 이앙 시 재식본수 및 재식밀도를 낮추어 이앙에 필요한 육묘상자 개수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다. 각 지역별 드문모심기 재식밀도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.

## [재료 및 방법]

재배지역은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경상남도, 경상북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이며 각 지역별로 지역별 적응 품종을 이용하여 3.3m<sup>2</sup>당 재식밀도 37, 50, 60 및 80주로 이앙하였다. 이앙시기는 각 지역별로 조기, 적기, 만기에 이앙하였으며 수확기 때 수량을 측정하고 수확 후 건조하여 현미품위를 분석하였다.

## [결과 및 고찰]

지역 평균으로 분석 시, 80주 이앙에 비해 쌀수량은 60주에서 0%, 50주에서 4%, 37주에서 6% 감소하였다. 이앙시기로 분석 시 80주 이앙과 비교하여 적기에 드문모심기 이앙 시 수확량 감소가 가장 적었다. 적기에 이앙 시 50주에서 80주 이앙에 비해 약 2% 수량감소가 있는 반면 조기 및 만기에 이앙 시 각 시기별 80주 이앙에 비해 50주 이앙 시 각각 약 6%, 5%의 수량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품질 분석을 한 결과, 현미 정상립 비율은 재식밀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현미단백질 및 아밀로스 함량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이는 재식밀도가 다르더라도 출수기의 차이가 없어 등숙기 온도 등 환경차이가 없었으며 단위면적당 영화수가 드문모심기의 경우 80주 관행재배와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기 때문에 등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.

## 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‘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’(사업번호: PJ01488601)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\*Corresponding author: E-mail, hwangwh@korea.kr Tel. +82-63-238-5263